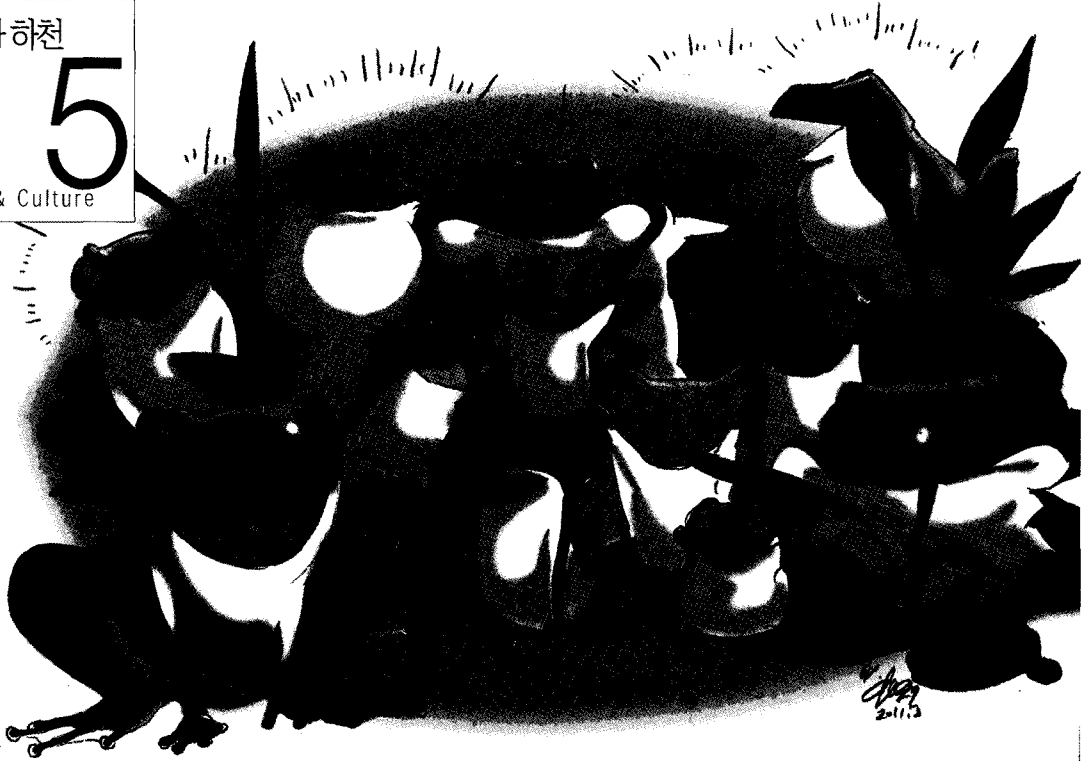


인간과 하천

5

River & Culture



김정현 | 동화작가  
(kimskorean@naver.com)

하천과 동화

# 청개구리와 나그네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몹시 더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더위 때문에 지친 걸음을 하였습니다. 숨은 가쁘고 이마뺨에는 땀방울이 촉촉히 맺혀 있었습니다.  
 ‘왜 이리 덥나..’  
 나그네는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태양이 이글이글 타며 피약 별이 뜨겁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휴우..’  
 나그네는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길게

내 쉬었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떨어진 곳에 그늘을 넓게 드리운 정자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나그네는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그 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등처에 등을 기대고 앉아 쉬었습니다. 나그네가 앉아서 바라보는 저만큼 떨어진 곳에는 벼가 자라서 누룽누룽 해져가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논 옆에는 개울이 구불구불이 이어져 있는데 거의 말라 있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그네가 쉬고 있길 얼마 안 가서 나무 위에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내려 왔습니다. 그 청개구리는 내려 와서는 나그네 앞



으로 다가 와 말을 건넵니다.

“아저씨, 몹시 덥지요?”

청개구리의 눈에는 나그네가 측은하다는 빛이 보였습니  
다.

“왜 이리 더운지 모르겠구나. 비라도 한줄기 쏘악 쏟아졌  
으면 좋겠는데...”

“제가 비 오게 할까요?”

나그네는 청개구리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

“사람들은 우리가 올면 비가 온다고 했는데요?”

“글쎄, 그런 말은 있지만...”

“계셔 보세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모아 한번 시끄럽게 울  
어 보겠어요.”

그리고 청개구리는 서둘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안 있었습니다. 청개구리들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럿이 우는 소리라서 금시 시끄러웠습니다. 이 시끄러운 울  
음소리에 벼 이삭 속에서 낮잠을 자던 메뚜기들이 눈을 떴

습니다. 나무 동치의 주변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돌아다  
니던 개미들은 놀란 듯 줄지어 땅 구멍을 찾아 들어가기 시  
작했습니다.

“야,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어디선가 고향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저만치 떨어진  
밭두렁 풀숲이었습니다. 고개를 치켜드는 뱀이 보였습니다.  
바로 뱀의 고향소리였습니다. 뱀은 목을 치켜들어 나무 위를  
바라보며 무서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려가 잡아  
먹을 것처럼 험해 보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단잠이 깰지 않아? 어디 겁도 없이 어른 잠자  
는데 시끄럽게 굴어, 응?”

그러나 청개구리들은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았습니  
다. 계속 울어댔습니다.

한편, 청개구리들의 울음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개울가 개  
구리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그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환영의 아우성 소리 같았습니다.

실은 개울가의 개구리들도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가는 개울물을 보고 몹시 걱정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개울에 물이 없으면 개구리들은 살 곳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는 먹고 살게 되는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구리들은 개울가에서 알을 낳고 새끼도 키웁니다. 그래서 개울은 개구리들의 삶의 터전이지요.

개울은 물고기도 사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끼 같은 풀도 살고 있습니다. 개울가 개구리들과는 다르게 뱀은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바깥으로 먹을 것들을 찾아 돌아다닐 수가 없는 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청개구리들이 모여 울고 있는 정자나무 있는 데로 다가갔습니다. 그런 뱀을 나그네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뱀은 나무 위로 오르려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나무막대기를 찾아 들었습니다.

“가만 안 있어?”

“선생님 왜 그래요?”

뱀은 겁을 먹고 말을 했습니다.

“너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청개구리를 잡아먹으려 해서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혼 좀 내 주려 하는 거예요.”

“넌 덤지도 않니? 하긴 냉혈동물이니까 이런 더위는 모르겠지. 그렇지만 난 더워서 못 견딜 지경이다. 저 청개구리는 나를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 안됐지만 난 네가 보이는 행동을 그냥 둘 수 없어. 그만 뒤. 그렇잖으면 난 널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비가 안 오면은요? 안 와도 저네들을 감싸 주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다. 성의에 난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 사람들은 성의만 보여도 감사할 줄을 알아. 너네들과는 다른 거야.”

뱀은 나그네의 말에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정자나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뱀이 떠난 후 얼마 안 있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굵은 빗줄기로 변해 쏟아졌습니다.

나그네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하늘은 온통 시꺼먼 구름이 모여들어 비를 쏟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무 위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고마움이라도 표시하는 듯 빙그레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